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배터리 ‘열폭주 경고등’

광주·전남 최근 5년간 화재·폭발 사고 39건 과충전·외부충격·미인증 제품 사용 등 원인

최근 광주에서 충전 중이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배터리에서 불이 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화재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26건, 전남 15건이다. 이로 인해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억8155만원 규모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에서 2022년 13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8건씩 발생하며 꾸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산 피해액 역시 해마다 변

동이 있었는데, 2022년에 1억3422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화재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인명 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19분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5대, 소방대원 4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9분 만에 오전 1시28분 불을 껐다. 이 불로 재활용품과 리튬배터리 등이 일부 타 소방 추산 22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재 당시 고물상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리튬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19분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3월18일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다쳤고, 이 중 20대 1명이 끝내 숨졌다.

이 같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지목된다. 과충전이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가 손상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다쳤고, 이 중 20대 1명이 끝내 숨졌다.

이러한 지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직

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채 방치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 역시 대부분 야외에 위치해 있어 차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PM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증된 제품 사용과 정기적인 점검, 적절한 충전 환경 확보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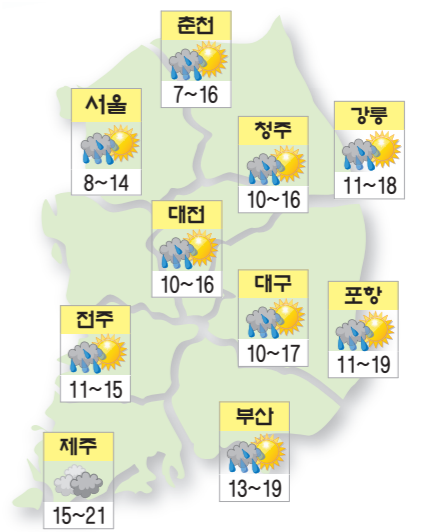
류명호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자가 미인증 제품의 경우 보호회로나 안전 설계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크다”며 “배터리가 부풀거나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진행해야 하며, 완충 후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취침 중이나 외출 중 장시간 충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6:13 달맞이 23:14
☁️ 맑음 18:57 달맞이 08:03



광주	☀️	11~17
목포	☀️	11~16
여수	☀️	10~18
순천	☀️	10~18
구례	☀️	9~17
광주	☀️	10~18
임도	☀️	12~19
곡성	☀️	10~13
고흥	☀️	9~19
진도	☀️	11~16

목포	미물(고)	04:40 / 10:20
	쌀물(저)	09:46 / 21:43
여수	미물(고)	11:06 / 23:37
	쌀물(저)	05:11 / 17:01

고범석 신임 전남경찰청장 임명

최병윤·조우중, 전남 출신 2명 경무관 승진

전남경찰청장에 고범석(56)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목포 출신 고범석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경찰대 8기로 1992년 입직 이후 전남청 홍보담당관, 해남경찰서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같은 날 전남 출신 경찰관 2명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되며 지역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경찰청이 앞서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에 순천 출신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55)과 영암 출신 조우중 경찰청 교통기획과장(56)이 이름을 올렸다.



고범석



최병윤



조우중

최 팀장은 순경 공제 출신(181기)으로 전남청 주요 보직과 순천·광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조 과장은 간부후보 43기로 입직해 영암경찰서장과 경찰청 주요 부서를 거친 교통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 성과와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으며, 수사체계 개편에 대응할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모의투표 체험하는 장애인 유권자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관 및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유권자 선거교육 및 모의투표 체험에 참여한 하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유권자들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최기문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지난해 광주 재난 피해 7764건·복구비 752억

복구 540억·동구 15억 격차...구별, 대응 방식 차이 “사후 대응 넘어선 선제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집중호우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77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에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개한 ‘2025년 재난관리 실태’에 따르면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총 7764건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는 752억원이 투입됐다.

복구는 기록적인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하루 426.4mm의 극한호우로 3530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신안동·운암동·중흥동과 석곡동 일대에

서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복구는 복구와 예방을 위해 540억2400만원을 투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석곡천 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수도 정비, 자연재해취약개선사업 등 정비 등을 추진했다.

동구는 주택과 상가 침수 등 472건의 피해에 대응해 15억3900만원을 투입했다. 서구는 하수관로 정비와 저수지 보강 등 예방 중심 사업에 28억원을 집행했다. 남구는 침수 취약지역 중심 대응 체계

를 가동해 1383건 피해에 48억원을 투입했으며, 광산구는 호우와 대형 화재가 겹치며 1846건의 피해가 발생해 153억원을 들여 복구와 방재 자재 확충을 진행했다.

이번 공시에서는 자치구별 대응 방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부 지역은 하수도 정비와 저류시설 확충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한 반면, 다른 지역은 사후 복구에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관계자는 “재난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춥쌀 때문에...한밤 중 화재

한밤중 순천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벌어져.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24분 순천시 장천동 3층 규모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2대와 대원 33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에 완전히 진화.

화재로 해당 세대의 작은 방과 거실 일부가 타.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단순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세대 거주자가 양초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순천소방 관계자는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촛불을 끄고 발침대에 촛를 고정하고 발침대는 넘어져도 안전한 크기의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

광주·전남 3월 평균기온 평년보다 높았다

올해 3월 광주·전남지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2026년 3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의 평균 기온은 8.5도로 평년 기온인 7.3도보다 1.3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 확대 이후 7번째로 높은 3월 평균 기온이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월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

로 기온이 상승했다.

22~23일, 26~28일에는 맑은 날씨에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이 발생했다.

특히 27일 광양시에서 하루 최고기온 25.3도를 기록했다. 28일 완도군 24.2도, 고흥·정읍군 24.1도, 보성군 23.7도였다.

3월 강수량은 90.8mm로 평년(79.7mm)보다 많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전남교육청, AI 기반 진로교육 전환 박차

교육과정 연계·창업체험 확대 학생 주도 진로설계 역량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확산과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진로교육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교육청은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6 진로교육 콘퍼런스’를 열

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고등학교 진로전담 교사 180여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과정 기반 진로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교원 전문성 제고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교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확대한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와 연동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진로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집중 지원한다.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진로와 직업’ 과목 및 진로전담교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도 늘린다. 22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 체험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고, 단발성 견학을 넘어 지속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



전남교육청이 AI 산업 확대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해, 진로교육 구조 전환에 나선다. 사진은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6 진로교육 콘퍼런스’ 행사 모습.

를 통해 학생들이 아이디어 기획부터 AI 기반 설계, 시제품 제작,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디지

털 기술, 신재생에너지, 미래농업 등 신산업 분야 체험도 함께 강화해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교원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진로전담 교사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연수와 연구대회 등을 통해 진로지도와 상담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인다. 학교 간 협력과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행사에서는 전남도청 AI 산업추진단이 지역 AI 산업 육성 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을 소개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전성이 진로교육과장은 “진로교육은 학생 삶과 연결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